

## 1. 25일 임시국회 개원, 한미FTA 그 향방은?

- 4월 25일부터 한달간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18대 국회로 넘어갈 지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은 17대 회기내에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현 17대 국회의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한미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이 합의되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FTA비준을 연내 처리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고, 미국측에서는 주요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환영 입장을 비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 의회 및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계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미 재계 150여개 업체들은 한미FTA 지지서명을 발표하는 등 공세를 퍼붓고 있다.
- 공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일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상임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9일 한미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14일 FTA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협상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농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반대가 거센 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된 상황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의 임시국회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결이 순탄하진 않을 듯 하나 이를 낙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2. 드디어 빗장 풀린 쇠고기 시장, 반드시 철회되어야

-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미국 측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풀렸다. 무차별적인 수입을 용인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어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도록 협상을 매듭지어짐에 따라 ‘조공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저가공세(한우대비 1/4수준)를 무기로 우리식탁을 무혈점령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에서도 미국 개방수준으로 시장을 열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축산업계는 급등한 사료값 문제에 더해 무차별 개방이 이뤄지게 되어 피해정도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이다.
- 협상발표 후 소값은 10%이상 폭락하고 있고, 돼지고기의 가격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축산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이러함에도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모든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도 퍼주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 협상 후 정부는 긴급대책을 내놓았으나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과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시민·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협상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협상 무효 선언 운동과 한미FTA 관련한 국회 일정에 맞춰 각종 집회와 농성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 3당은 임시국회에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청문회에서는 ▲무효화 추진 및 보완 대책 ▲협상 경위·과정 진상규명 ▲검역주권 침해 문제 ▲축산농가 대책마련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